

지역 광융합·AI 기업, 중앙포 진출 교두보 마련

광산업진흥회, 우즈벡 조사단 파견 재난안전 시스템 전문기업 등 지원 스마트 조명 등 1600만 달러 계약 향후 사업추진 협력관계 구축 성과

지역 광융합 및 AI 재난안전 기업들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28일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내 LED스마트 가로등 및 AI 재난안전 시스템 전문 기업들과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업무협력 체결 및 현지 광융합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현지 가로등 관리 공기업과 LED 조명 및 분전반 전문 기업을 방문해 조명 기술 수준을 비롯한 관리 및 운영 방식, 총 관리 수량, 설치된 등기구 종류와 비율, 전기 설비 현황은 물론, 스마트 가로등과 관련한 인허가 및 설치 표준 등 법



한국광산업진흥회 안성영 총괄본부장(왼쪽 세번째)과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키시 부시장(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광주지역 스마트 가로등 및 AI재난안전시스템 전문 기업 관계자 및 우즈베키스탄 가로등관리 공기업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현지 가로등관리 공기업에서 양국 산업과 스마트 조명기술 및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제공

령, 정책, 지침, 금융 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향후 우즈베키스탄에 공적 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진흥회는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키시 및 가로등 관리 공기업과 양국의 산업 발전 및 스마트 조명기술,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는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약 13만개의 LED 가로등 및 보안등과 관제센터를 구축한 바 있는데, 향후 국가 전력난 해소를 위해 태양광 독립형 스마트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양국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가 내 에너지 효율화 및 스마트 조명기술 보급, AI재난안전 시스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통한 현지 시범 설치 프로젝트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할 예정이다.

또 이번 조사단에 참가한 트로닉스㈜(대표 박병덕)는 주력 제품인 'e-IoT 스마트 공공조명 통합 관리 제어 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예코 스마트사와 1000만달러, KPI HCHJ LLC사와는 600만달러의 수출 의향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5년간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으로 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스마트 가로등 및 AI 재난안전 시스템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진흥회는 국내 광융합 기업들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사업 모델을 개발, 우즈베키스탄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도시 에너지, 안전, 환경과 관련된 광융합 제품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이어 오는 11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국제광융합전시회에도 우즈베키스탄 내 10여명의 유망 바이어를 전략적으로 초청해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철동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은 "광융합 공적개발원조 사업모델을 충실히 마련해 우즈베키스탄 발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국내 광융합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널리 알리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 박람회' 개최

29~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광주 시, 전남도,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고용노동청, 한국전력공사와 공동으로 지역 내 구직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제5회 광주·전남 합동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광주미래산업엑스포'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일자리박람회는 광주·전남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에너지밸리기

업, 코트라 외투기업 등 60개사가 참여한다.

29일에는 한전 에너지밸리기업과 코트라 외국인 투자기업, 30일에는 광주·전남 우수 중소기업들이 현장 서류접수 및 현장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박람회에서는 취업 특강, 채용설명회 및 취업전략 등을 소개하는 코트라 외국인 투자기업 채용설명회와 유관 기관별·고용정책 홍보관 운영, 취업 컨설팅 부스 운영, 퍼스너컬러 진단, 이력서 사진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곽지혜 기자

JB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강소금융그룹' 도약

광주은행 등 계열사 9개 '성장' 출범후 당기순이익 22.2배 증가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JB금융그룹이 오는 7월 1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JB금융그룹은 최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10년의 동행,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박준원 JB우리캐피탈 대표, 최원철 JB자산운용 대표, 이구욱 JB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임직원 3500여명이 참석했다.

J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를 받은 JB금융지주는 지난 10년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어 왔다. 출범 당시 2개의 계열사로 시작해 현재 지주 포함 10개사를 거느린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출범 첫해 16조1861억원 수준이던 그룹 총자산은 올해 1분기 60조원을 돌파하는 등 3.7배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지배지분 기준 사상 최대치인 6010억원을 기록, 출범 첫해 271억원 대비 22.2배 이상 급증했다.

보통주자본(CET1) 비율은 2019년 말 최초로 금융감독원 권고 수준인 9.5%를



JB금융그룹은 최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10년의 동행, 새로운 도약'을 슬로건으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JB금융그룹 제공

넘어선 이래 2020년 10.05%, 2021년 10.30%, 2022년 11.39%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12.32%를 달성했다.

수익성 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주요 경영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지난해 13.88%, 총자산이익률(ROA)은 1.05%로 출범 초기 각각 6.44%, 0.39%였던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이익률(ROA)은 2배 이상 성장했다. 경영 효율성 지표인 영업이익경비율(CIR)도 2018년 52.3%에서 수익 확대와 지속적인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 지난해 37.9%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총주주환원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27%로 2018년 14.5% 대비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9년 취임한 김기홍 회장은 하지만 젊고 강한 '강소금융그룹'이라는 그룹 비전 아래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과 선제적 리스크관리에 역점을 두고 그룹의 시장가치를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견인하는데 경영목표를 두고 있다.

김기홍 회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 및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를 통해 그룹의 성장세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 디지털 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다각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 투명 경영과 상호존중 기업문화 강화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사업을 통해 수출 성과를 거둔 업체 제품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진공, 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추진

바우처·아카데미 등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사업 대상은 공모를 통해 253개사가 선정됐다. 판로개척 사업은 바우처와 판로아카데미로 나눠 지원한다. 바우처는 2500만원 한도에서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해외 진출용 컨텐츠(영상제작, 브로셔 등) 제작,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받게 된다.

판로아카데미는 일반소공인과 스타소공인으로 구분한다. 일반소공인에게는 사전진단, 해외진출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

팅), 해외 e커머스(아마존 등) 입점 및 판촉지원, 수출상담회, 물류비 지원에서 사후관리 등 유통 전 단계를 지원한다. 스타소공인은 공개 오디션에서 선정된 우수소공인에게 전략 및 기획, 인큐베이팅, 판로지원, 사후관리 등 전문화된 지원을 제공한다.

소진공은 올 하반기에 수출상담회, 해외박람회(K-CON, 아이돌트럭 등)에 참여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판로 연계지원 등을 계획 중이다.

박성호 소진공 이사장은 "국내 전체 제조업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뿌리산업인 소공인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지역 주택업계·레미콘업계 "시멘트값 인상 반대"

시멘트 톤당 14%가량 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기섭)와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두), 전남 남부, 동부레미콘사업조합은 28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회합을 갖고 최근 일부 대형 시멘트회사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인상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이들은 "양 업계는 시멘트의 주 소비자로서 시멘트 제조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가격이 전년대비 58%나 하락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을 이유로 시멘트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 시멘트 공급물량의 35%를 차지하는 쌍용C&E와 성신양회는 오는 7

월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14%가량 인상한다고 통보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이날 회합은 지난달 지역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상생을 위한 만남을 가진 후 향후 모임의 정례화와 상호간의 긴밀한 소통을 강화해 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라며 "시멘트 업체들에게 주 소비자인 지역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